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시A)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시A)
- 회의일시 : 2025년 2월 5일(수), 17:00~18:28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영임, 문태준, 장이지 심의위원

이 사업은 문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사업은 대개 발간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이 사업은 발간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작품집 발간 후속 활동을 두껍게 지원함으로써 작가와 사회 일반의 접촉면을 늘리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서류상의 결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시A 분과에서는 총 110건의 지원신청서를 세 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기준과 그 가중치를 밝히면, 사업 공고에 제시된 대로 창작 역량(50%), 활동 계획(30%), 기대 효과(20%) 등입니다. 심의는 심의위원 각자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채점하는 개별 심사, 심의위원 세 사람이 모두 모여 개별 심사의 내용을 토대로 서로 더 심화한 논의를 거쳐 2차 심의에서 다룰 7건을 추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가의 존재 양식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과거 작가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내면으로의 침잠을 거듭하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가꾸는 데 주력했다면, 오늘날의 작가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와 직접 만나서 서로 부대끼면서 자기 세계를 형성해가고 또 그것을 널리 알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은 서점들의 확산, 낭독회나 북콘서트 시장의 팽창, 새로운 웹 플랫폼 기반의 문학 향유 방식의 변화 등과 맞물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문학장의 변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서 나오는 참신한 기획을 찾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지원서의 활동 계획과 세부 내용을 보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7건을 추리는 데 우리는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창작 역량이 입증된 기성 작가들과 문학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플랫폼 친화적으로 이미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로 추려진 감이 있습니다. 양자가 겹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추려진 사업들은 지원신청서에 자기 세계관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그 실현 가능성이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작 역량을 판단할 때,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자기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의 정치함이나 찬찬함이었습니니다.

이 사업은 최근 10년간의 창작활동을 근거로 하고, 창작 역량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특성상 신인들에게 불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이 같은 점을 보완하는 다른 사업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작가의 경력별로 지원사업 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등 구조화 작업이 더 정밀하게 이루어져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고민해 주시길 삼가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 일동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시B)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시B)
- 회의일시 : 2025년 2월 6일(목), 13:00~13:55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재홍, 이근화, 조말선 심의위원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은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재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발간 및 발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분야 선정 이력 및 주요 문학상 수상, 단행본 출간 이력을 가진 작가들의 향후 문학 활동 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창작지원금이 기존 대비 100% 증액되었으며, 연도 내 작품집 필수 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과 보고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시B 분과에서는 226건(결격 8건)의 지원 가운데 109건을 심의하여 최종 7건을 예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한 지원자가 많아 동점 처리된 경우도 있었으나 세 명의 심의위원이 공통으로 높은 점수를 매긴 7명을 선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으며, 이견 없이 우수 지원자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지원자 역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확정권 안에 들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작가의 창작 역량과 활동성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었으며, 현장 활동에 대한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쪽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사업은 창작집 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에 문화예술위원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후속 활동을 기획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계획한 의욕적인 지원서들이 많았습니다. 문학적 쇄신과 자기 갱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문학인들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문자 예술이 위축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는 지원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원서류 작성이 미흡하거나 서툰 경우도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선별하여 보여주기 위한 지원자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예술계에서 지켜야 할 것과 달라져야 할 것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심의 과정을 통해 그 자체의 어려움 역시도 이 시대가 부여한 우리의 공동 과제임을 겸허히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 일동